한국타이어, 대전공장 화재사고

정련 작업동 옥상서 발생 … 집진시설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

2월3일 낮 12시50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작업동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진시설 등을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.

화재가 발생하자 119소방차 등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센 바람과 매연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경찰은 공장 정련 작업동 3층 옥상의 집진기 덕트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. (대전=연합뉴스 윤석이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2/06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